

Saboy-Saboy Tay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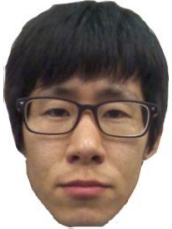
(Let's do it together!)



산 파블로 YMCA와 필리핀 팀이 함께 합니다.

1. Philmony with YMCA of San Pablo city

Manny (하민수) : 털남, 스캔들남, 농구남, 자남? 화남? 콜라 감별사



특징 : 12 월 팀 리더. 한 필리핀 여자에게 호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함. 여자 앞에서 적극적으로 변신함. 아이들이 은근히 좋아한다. 생각을 많이 한다. 잠도 많이 잔다.

잘 하는 것 : 자는 것, 먹기 싫은 거 꼭 참고 먹기, 농구, 군것질 하기

Sean(안순규) : 돌쉐코, 라이언 방, 코만남 (코 만지는 남자), 숨은 여자킬러



특징 : 11 월 팀 리더. 무표정이면 무섭다. 경험 상 맛있는 음식은 안 먹는다

(우리한테 안 알려줌) 항상 보면 뭔가(게임과 카톡)를 하고 있다. 다리가 여자 뺨치게 예쁘다.

잘 하는 것 : 쪼물쪼물 만들기, 비난하기, 째려보기, 코 만지기, 게임, 여자랑 빨리 친해지기

Liz(이예은) : 삼등신 마리오, 변태, 라이언 빠순이, 짜당예은, 몽고다운증



특징 : 9 월 팀 리더.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크다. 호탕함. 호흡이 짧다. 집중할 땐 세상이 끝난 표정이다. 몸을 잘 못 가늠다. (잘 넘어지고 잘 박는다) 과일과 떡(Puto)을 잘 먹음.

잘 하는 것 : 소리지르기, 창, 비비크림 바르기, 수건으로 슬리퍼 닦기, 비타민 챙겨먹기, 밥 먼저 뜨기, 마미 귀찮게 하기

Jina(이금선) : 네이티리, 부띠끼, 즐리비, 허리만 8 등신, 빵빵해, 못생긴게, 따바, 콜레스테롤, 요가파이어, 파레



특징 : 10 월 팀 리더. 동네 북이다.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놀림) 약점이 엄청나게 많다.

친절한데, 여성스러울까? 4.5 할이 허리, 활 잘 쓰게 생김, 무릎이 나가도 요가는 계속된다.

잘 하는 것 : 요가, Batang Y 랑 놀기, 타갈로그어, 약점 노출하기, 요리하기

YMCA FAMILY(총장님과 Batang Y 삼총사)

마미(크리스티 총장님): Talkative, 몸에 안 좋은 음식 골라먹기, 채소 안 먹기, 페이스북 하기

추진력이 남다름, 라온아띠 챙기기, 고양이 찾기, 예쁜 척 하기, 친화력이 매우 좋으심.

아이안(아들): 매 끼마다 혼자 햄 먹기, 이방 수업, 카오스하기, 머리에 왁스 칠하기, 잡기에 능함

잭(딸): 짹짹대기, '언니, 오빠' 말하기, 맨날 친구 3 명하고 다니기

제프리: 원숭이, 일 겁나 잘함, Batang Y 의 리더, 늘 웃음을 달고 살고 친절함, 금선바라기, 이상한 타갈로그어 가르쳐주기, 절반은 한국인, 몸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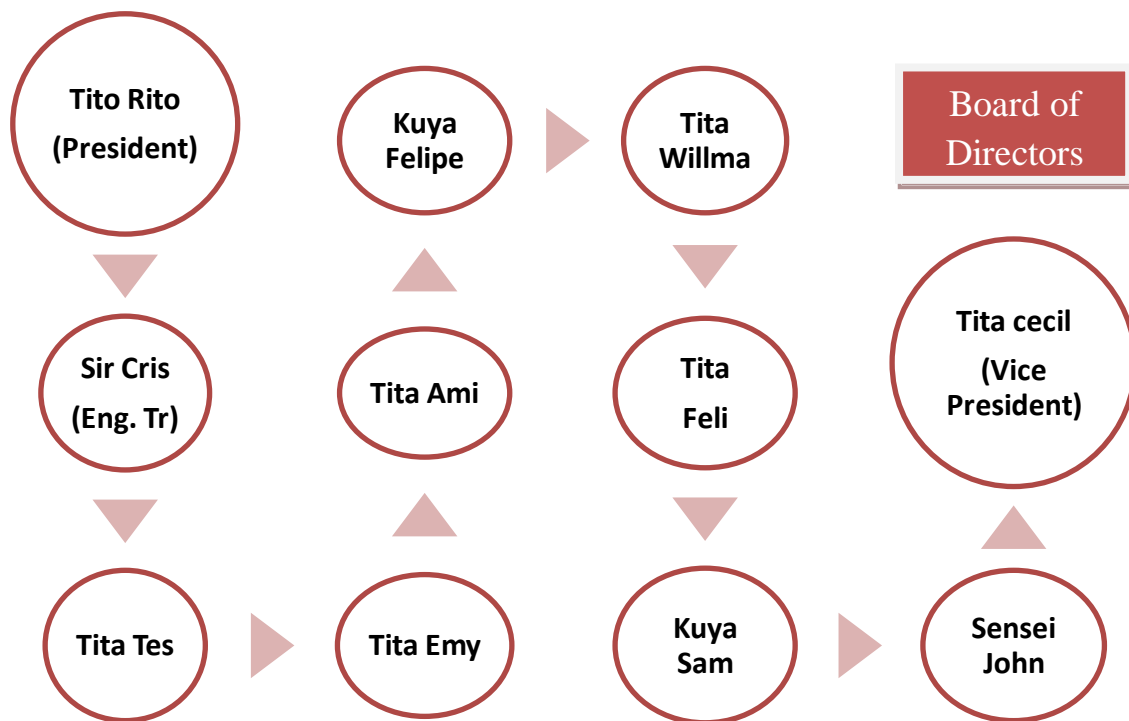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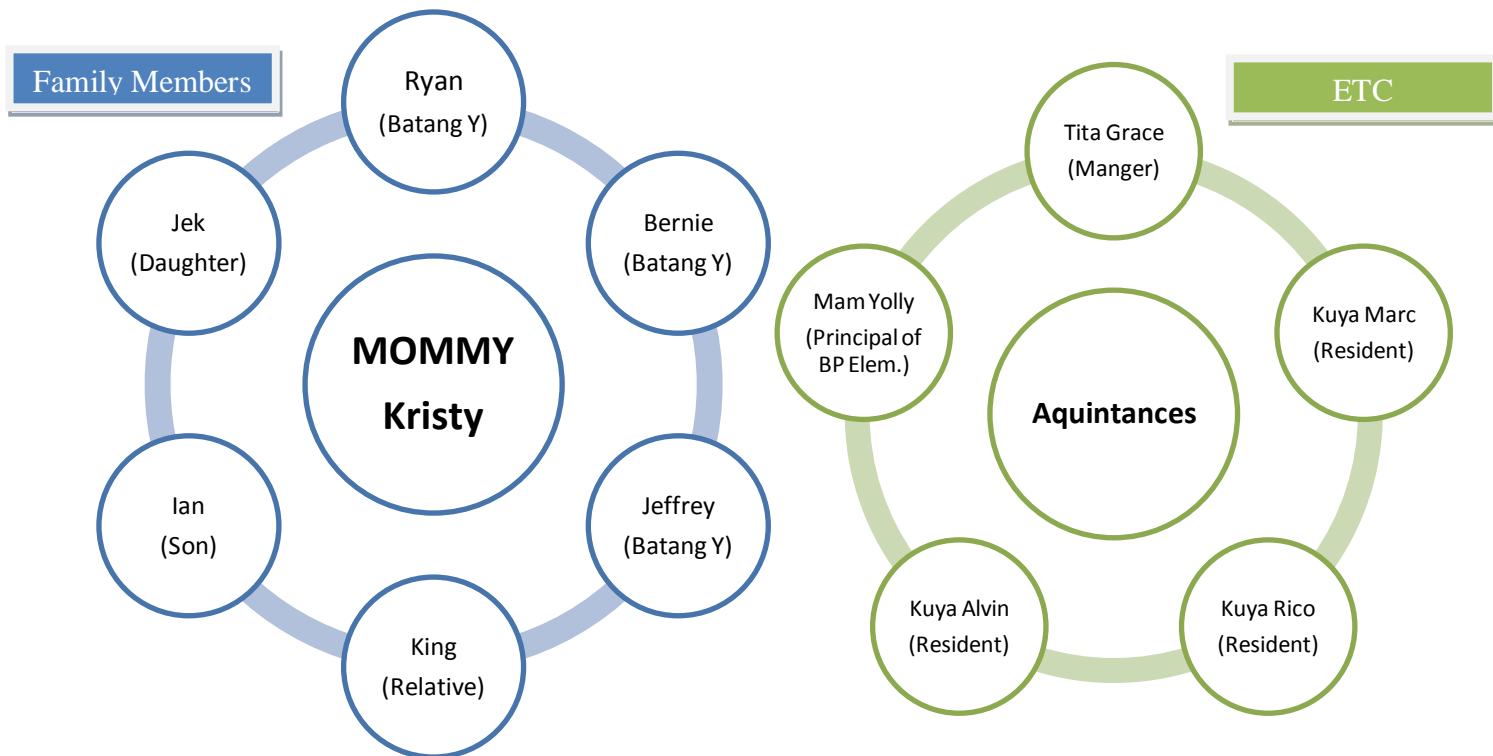
버니: 늦잠꾸러기, 청소 열심히 하기, 가끔 혼자 사색에 빠지기, 마미 커피셔틀, 셋 중 가장 브레인, 일 잘함, 노래하는 거 좋아함

라이언: 올챙이, 일 은근히 잘함, 가벼움, 팔다리 길쭉길쭉, 손도 매우 큼, 미소가 아름다움, 낮 가림.



- 필모니(Philmony) : 라온아띠 8 기 필리핀팀의 팀명. Philippine 과 Harmony 의 합성어로, 필리핀에서 조화롭게 활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음

2. 인물 관계도



3. 9월 스케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5 필리핀 도착	6 필리핀 Y 오리엔테이션	7 산 파블로시티 도착	8 과일농장 방문
9 시장 구경	10 Dep Ed/경찰서/ 시청/ tourism office 방문	11 Baloc 방문, 경찰관과 체조	12 Dep Ed 방문, SM mall 방문	13 바공포옥 첫 Feeding	14 바공포옥 스낵 Feeding w/CIT	15 Barangay Soledad Fiesta 참석, 결혼식 참석
16 Reflection w/mommy, Mommy 시어머니 생신 초대	17 Baloc Nanay 미팅, Bernie 사촌 돌잔치	18 경찰관과 Malabanban 에서 나무심기, 재활용품으로 장식품 만들기 수업	19 장애인학교 방문, Canossa College 방문	20 민수생일 바공포옥 Feeding, Baloc 청소년과 미팅, 영어&타갈로 그어 수업	21 금선생일 SM Mall 과 회의 (캠페인 관련)	22 영어&타갈로 그어 수업, 결혼식 참석
23 End Poverty 뱃지 제작 의뢰, 장식품 만들기	24 Reflection w/mommy, SPC YMCA 현판 만들기	25 마닐라 (비자연장)	26 현판 마무리, 양로원 방문	27 바공포옥 Feeding, Baloc Nanay 호박누들 만들기, SM Mall 과 회의	28 송편 만들기, 춤 연습 (강남스타일)	29 영어&타갈로 그어 수업, 춤 연습 (강남스타일, 티니클링)
30 춤 연습 호박누들 만들기						

4. 필리핀 팀의 주요활동

♥ 필리핀 YMCA 이해하기 (마닐라), 산 파블로 이해하기

- Y 소속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Y에 대한 이해는 필수겠죠. 필리핀 Y 총장님이신 쿠야 팝스와 필리핀 국립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신 쿠야 텍스가 Y의 이해를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माम이라고 부르는 크리스티 산 파블로 YMCA 총장님께서도 산 파블로 Y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셨습니다.

♥ 지역사회로 들어가기

(웨딩, 생일초대, Dep Ed, 경찰, 기관 관계자들)

- 가끔씩은 저희가 자원활동가가 아닌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할 만큼 여러 곳에 방문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저희를 알리고 필리핀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필수 코스겠죠. 이렇게 쌓은 인맥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Feeding program & activity

- 저희의 주된 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에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을 찾아가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Feeding program을 실시합니다. Feeding이 끝난 후에는 저희에게 30여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준비한 Activity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Baloc 방문(초등학교 방문/나나이와의 만남), ALS 토대 다지기

- Baloc 과 산 파블로 Y 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합니다. Baloc 의 나나이들(어머니를 뜻하는 필리핀어)에게 바나나칩, 호박국수, 땅콩버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나의 생계수단을 마련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Baloc ALS 학생들과도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Korean Day 때 함께 강남스타일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 문화 교환 (송편 만들기, 영어/타갈로그어 수업, 호박누들 만들기)

- 언어, 음식, 춤 등 필리핀의 여러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의 전통 춤인 티니클링은 End Poverty 때 공연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을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 END POVERTY 준비 (크리스마스 데코 만들기, 핀 만들기)

- End Poverty 캠페인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PC 교육감을 강사로 초빙했고, 판매할 핀과 팔찌도 이미 제작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판매를 하면서 미리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nd Poverty 캠페인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겸한 End Poverty Commitment Tree 를 포토존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자 한가지씩 담당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할 데코레이션을 대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 기타 : 현판 만들기

- 10 월 13 일부터 시작되는 YMCA World Challenge 때 많은 지역민들이 찾아올 것 같아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YMCA 현판을 만들어 입구에 붙여놨습니다.



5. 이번 달의 회의록 (9월 15일자)



예은 : 아 힘들다... 그래도 오늘은 회의가 있는 날이니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지난 이틀 동안 어떤 활동을 했었죠?

민수 : 장애인 학교에도 방문했고, 아 발록에 사는 ALS 수강생들과도 인터뷰를 했어. 서로 느낀 점을 공유할 때 예전에 방문했던 발록의 쓰레기 산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

금선 : 네 좋아요! 서로 생각을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규 : 어제 나를 보자마자 안기는 아이가 있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표정을 봤는데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이 친구들은 소소한 것에도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

예은 : 아이들 정말 예쁘더라!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대단한 것 같아. 악기연주 할 때 우리같이 가서 봤잖아. 청각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 입으로 계이름을 하나하나 다 불러주고 있더라고. 힘들만도 한데 항상 웃고 계셨고. 그만큼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증거겠지? 학생들 못지않게 기억에 남아.

순규 :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아이들 표정을 봤는데 기쁨이 얼굴에 한 가득인 거야. 소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 할 수는 없지만 진심만은 완벽하게 전달 되는 것 같아.

민수 :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장애인들을 보면 얼굴 제대로 못 보고 피해 다니는 경향이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오늘은 내 자신에 대해 좀 놀랐어.

금선 : 맞아요. 저도 피해 다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자연스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학교가 엄청 좋지 않았어요? 공립학교로 기억하는데. 바공포육이랑 같은 '학생들'인데 받는 혜택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후원자도 훨씬 많다고 하고....

예은 : 구조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사지가 멀쩡하다고 항상 삶의 조건이 좋은 건 아닌데 말이야.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왜 한쪽은 후원자가 많고 왜 한쪽은 별 성과가 없는지, 이것도 차별인가?

금선 : 우리가 방문했던 카노사 컬리지 하고도 비교돼요. 그쪽은 캐리어 끌고 다니는 소위 잘사는 아이들이 가득하고, 학생들의 집은 넉넉하지 않아도 후원자 때문에 좋은 시설을 갖춘 곳도 있고. 반면에 라온아띠 도움 없이는 힘든 곳도 있고.. 학교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느껴지네요.

민수 : 맞아. 빈부격차가 크긴 한 것 같아. 생활하면서 그게 느껴져.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은데 한계도 있고...

순규 : 내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겉으로만 빈곤을 판단해서는 안될 것 같아. 산 파블로는 언뜻 보기에는 잘사는 동네 같지만 골목 골목에는 또 다른 사연들이 있는 거 같거든. 일단 우리의 주된 활동이 학교 쪽에 맞춰져 있으니 좋은 방법들을 많이 생각해 보자.

예은 : 역시 다들 생각이 많았구만! 마미 말로는 이 학교에서 피딩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도 있다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 발록 이야기를 좀 해볼까? 우리 서로 나눠서 인터뷰 했는데 대강 어땠어?

금선 : 발록 사람들 인터뷰 할 때 질문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얘기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게 신기했어요.

순규 : 나도 좀 인터뷰하는 내내 좀 그렇더라고. 그나저나 거기에 쓰레기 산은 언제 생긴 걸까? 다들 자발적으로 들어오긴 한 것 같긴 한데 쓰레기 줍는 게 직업이라니 좀 슬퍼.

예은 :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사실 시체도 버린다는 이야기는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측은하기도 하고, 왜 그곳을 벗어 날수 없을까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 한계를 느낀다고 해야 할까? 인터뷰를 할 때 언제부터 이곳에서 살았는지 물어봤는데 부모님, 혹은 부모님 이전 세대에서부터 살았더라구. 발록을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기도 했어. 마치 늪처럼. 우리가 바로 빈곤이 대물림 되는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아.

민수 : 물론 발록 사람들의 빈곤한 삶을 봤을 때 마음이 아팠어. 하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쓰레기 산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 자체는 안쓰럽게 보서는 안될 것 같아. 그곳 사람들에게는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인데 낯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본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순규 : 사실 쓰레기 산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의 효과, 나비효과'가 갑자기 생각났어. 이전에는 물건을 사서 쓰고 버리고 하는 것에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젠 내 행동이 쓰레기를 만들어서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더 중요한 건 나의 이런 행동들이 발록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건지 삶의 터전을 파괴한 건지 헷갈리더라고.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금선 : 저는 발록 가서 쓰레기 산을 딱 봤는데 뭔가 막막하더라고요. 산 파블로 오기 전에도 쓰레기 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쉽사리 상상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걸 실제로 보니까 되게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어쩌다가 이곳이 이렇게 변했고, 왜 사람들이 여기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살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은 : 오케이! 오늘은 끝! 피곤하니 오늘은 빨리 잡시다! 수고했어요!

6. 라온아띠 고정 스케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Meatless Monday	영어/타갈로그어 수업 정기 팀 회의		바공포옥 피딩 영어/타갈로그어 수업 정기 팀 회의	ALS 수업 지원	영어/타갈로그어 수업 Reflection 정기 팀 회의 및 칭찬타임

* 향후 추가될 예정

7. 향후 계획

- ♣ Feeding : 주 3 회(예정) -> 바공포옥 2 회 + 사랑과 희망의 학교(장애인 학교) 1 회
 - 다른 학교에서도 피딩에 대한 요청이 많지만 바공포옥 초등학교에서의 피딩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피딩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후원이 중요한데요, 산 파블로 YMCA 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다른 후원자를 찾게 되었고 피딩 횟수를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에 3 회 정도의 피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 ALS : 초등/고등 ALS 테스트 대비 학습지원. 영어, 수학 수업에 집중 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라온아띠 필리핀 팀의 주력 활동이 될 프로그램 입니다. 올해 안에 테스트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입니다. 저희는 영어와 수학 수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라온아띠 4 명이 모두 선생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팀 내에서 스케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 ♣ 도서관 : 책 구입. 바공포옥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정상적인 시스템을 가진 도서관을 만들 계획
 - 전 기수의 노력으로 바공포옥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이 완성 되었습니다. 책도 계속 구입 중이고 도서관을 꾸미려고 노력 중이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열려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End Poverty Campaign

- MDGs 를 기본 틀로 하여 지역 내의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빈곤의 문제 중에서도 교육과 연대구축이 산 파블로의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두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필리핀에서도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 진학률은 5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인해 초등과정도 중도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희 팀은 이에 착안하여 왜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갈수가 없는지, 그리고 왜 꼭 학교를 가야만 하는지를 설득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SM 쇼핑몰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END POVERTY 를 알릴 계획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여러 가지 공연을 준비했고 포토존 행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라온아띠의 강의와 함께 연사 초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10 월 17 일 이후에도 캠페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8. 칭찬타임

♠ 라온아띠 필리핀 팀은 매주 토요일 정기 회의 시간에 칭찬타임을 갖습니다. 한 명의 팀원을 지목해 일주일 동안 칭찬거리를 찾은 후 다른 팀원들이 그 팀원을 칭찬하는 방식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라온아띠 일정 동안 한번쯤 쉬어가자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이들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 줌으로서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 **민수** : (10 월 대상자)

◆ **순규** : 우리 팀은 약간의 일 중독이 있는데 중간에서 잘 조절해 주는 것 같다. 너무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방관만 하지도 않는 '중도'를 지키는 팀원이다. 자칫 균형을 잃기 쉬운 팀 생활에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선을 잘 지키는 것이 순규 팀원의 장점이다.

◆ **예은** : 아마 예은 팀원이 없었다면 우리 팀의 일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고,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한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마미'(총장님)와의 시너지 효과로 필모니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금선** : 첫인상은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인 것 같지 않은데 지내다 보니 정말 열심히 한다. 뻔 것 같으면서도 모든 일이든 열심히 한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내거나 기죽지 않는다. 굉장히 부지런한데 항상 먼저 일어나서 팀원들의 아침밥을 챙기고 있다.

9. 이 달의 타갈로그어 문장

- **Manny(민수)** : Mahal kita. (I love you, 사랑해요.)
- **Sean(순규)** : Ikaw ay sobrang maingay. (You are so noisy, 당신은 너무 시끄러워요.)
- **Liz(예은)** : Naholog ako sa sampaloc lake at malabanban ulet.
(I fell off at Sampaloc Lake and malabanban again. 삼팔록 호수와 말라반반에서 넘어졌어요.)
- **Jina(금선)** : Meron akong itlog at siopao sa mokha ko. (I have egg and siopao on my face,
제 얼굴에는 계란과 쇼빠오(필리핀식 호빵)가 들어있어요.)

10. 이 달의 사진



<Paaralang Pag-ibig at Pag-asa(사랑과 희망의 학교)에서>

* **선정 이유:** 팀원 모두가 즐거워 보이고 해맑게 나왔다는 점에서 이견 없이 이달의 사진으로 선정되었다. ‘사랑과 희망의 학교’에서 찍은 사진으로 이 학교는 장애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다. 활동초기의 부침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새로운 피딩이 이곳에서 실시될 예정)우리의 다짐과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주는 사진으로 생각해 이달의 사진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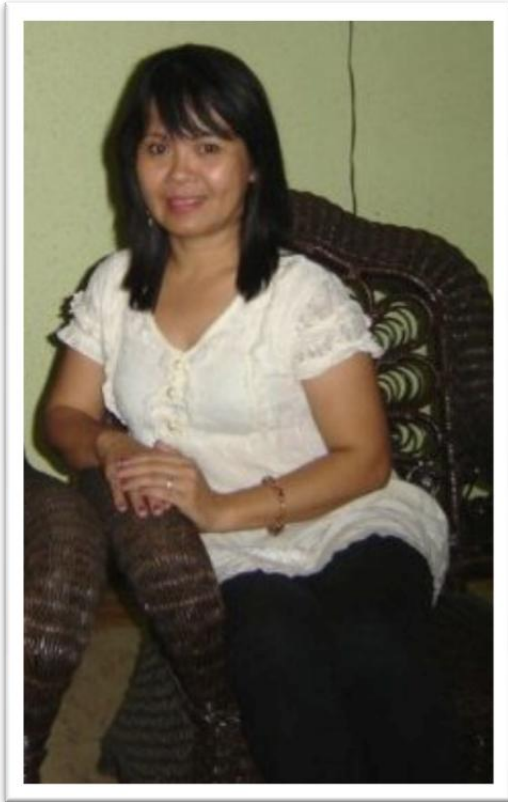
* **주목할 점:** 민수단원의 콜라를 보호하는 손길. 순규단원의 각선미. 금선단원의 키. 예은 단원의 해맑음.

II. 이달의 인물: Kristy D. Sumague (General Secretary of YMCA of San Pablo city)

1. 마미 크리스티(산파블로 YMCA 의 총장님)의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제 인생은 다채로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말썽쟁이였죠. 그래도 제 주위에는 늘 친구가 많았어요. 한 번은 호랑이 선생님 성대모사를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이 저를 교탁 위에 들어올려놓을 정도였어요. 항상 공부를 잘 한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제게 새 옷이나 신발을 사주곤 하셨어요. 저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책임감이 무엇인지 어린 시절부터 배우기도 했습니다. 크면서 그런 부분을 더 발전시켰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의 가치를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용돈을 빠짐없이 모아서 좋은 공책, 펜이나 가방을 사기도 했었죠. 학교에 갈 때는 잘 다려진 치마를 입고, 치마에 잘 어울리는 신발을 신고 가는 멋쟁이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때는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바탕가스 국립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립학교를 졸업한 덕분에 지금까지도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용돈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저 음료수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를 사먹을 수 있는 돈이 다였어요. 다만, 학교를 다니면서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고, 남다른 책임감을 키우는 연습을 많이 했죠. 학교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런 제 모습을 부모님께서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저를 비롯한 네 명의 남동생들을 학교에 보내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 대학교의 입학 시험을 봤고, 다행스럽게도 한 학교의 전액 장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고, 회계학과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덕분에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그 당시에는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인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자면, 젊은 시절에 제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만 원 없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진 이유를 생각해보니, 하나는 가리는 음식이 있었던 탓이고, 다른 하나는 밥 외에는 별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던 형편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모르실 겁니다. 대학 졸업 직후 첫 직장(회계사로 16년을 근무)을 가졌던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가족에 여러모로 기여하는 바가 컸다는 점에서 제 자신이 대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2. 산 파블로 YMCA 에는 어떻게 오신 건가요?

카노사 컬리지에서 저를 돌보아 주시던 한 분이 산 파블로 YMCA 의 여성 이사진이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몸이 아팠는데, 그 분이 약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곤 했었죠. 그분이 제게 YMCA 의 이사진 회의에 참석해, 당시 공석이던 총장직에 지원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준비는 되어있지 않았었지만 이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남편도 제 건강을 염려해 이전에 하던 일(피자와 쇼파우-필리핀식 호빵)을 멈추길 바라던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답을 얻을 수 없어, 그저 열심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구해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도 도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얻은 응답이 '산 파블로 YMCA 에서 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곳에서는 '일'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신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는 몸 상태도 좋아졌고, 잘 아프지도 않습니다. 또, 산 파블로 안의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의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들의 존재를 알고 난 이후, 저는 YMCA 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더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1 명의 이사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 주위에서 항상 저를 도와주는 파트너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까지도 모두 저에게 영감을 주는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3. 라온아띠 8기 필리핀 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팀으로서 아주 활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에 항상 고맙습니다. 물론 아직 적응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하자면 모두 다른 특징을 가졌죠. 모두들 다른 곳에서, 다른 교육환경과 다른 방식으로 자랐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떤 팀원은 비판적인 사고에 능하고, 다른 팀원은 창의적입니다. 또 다른 팀원은 배우고 나누려는 적극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활동가가 가져야 하는 마음씨는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열린 마음으로 산 파블로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모습을 통해 의미 있고 창조적인 활동을 하려는 필리핀 팀원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한국 & 필리핀 문화비교 (이번 달 : 웨딩)

공통점	차이점
<p>서양식 결혼을 많이 한다. 밥 먹는 게 목적이다. 주례사는 여전히 길다.</p>	<p>축의금 대신 선물을 준다. 까만 옷은 장례식용! 착용은 금지다. 결혼식마다 모티브 색이 있다. 종교의 영향으로 주례보다는 설교를 한다. 끝나고 답례품을 하객들에게 나눠준다. 신랑신부가 식의 마지막에 비둘기를 날린다. 포토존과 포토타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결혼식에 스폰서(가족, 친구)라는 존재가 있는데, 결혼준비를 도와주며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p>



13. Meatless Monday & 나비효과, 나의효과

1. Meatless Monday

● **Manny(민수)** :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기가 안 나오면 주로 생선이 나오는데, 생선이 싫어요. 한국에서도 잘 안 먹는 것 중 하나거든요. 반찬이 없어서 살기 위해 먹는데, 종류별로 생선이 나올 때마다 한숨이 납니다 TT. 국내 훈련 때는 지켜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이 조금 사그라든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구시민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 **Sean(순규)** : 고기 없는 밥상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리는 음식이 별로 없어서 고기 없이도 잘 먹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Y 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나비효과를 인식하면서 고기를 줄이려고 노력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고기를 안 먹어도 채소, 두부, 생선, 계란 같이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서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기는 한데. 솔직히 고기 없을 때 힘드네요... 그래도 적응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 **Liz(예은)** : 고기 없는 식단이 좋기는 한데, 마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고기 없이 식단을 짜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고기를 빼니 차릴 음식이 없다고 할까요? 그만큼 고기를 알게 모르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또, 마미와 Batang Y 도 우리 때문에 고기 없는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려요. Batang Y 는 힘쓸 일이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모두가 만족스러운 Meatless Monday 식단을 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기 식구들이 Meatless Monday 를 지키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요.

● **Jina(금선)** : 원래 고기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Meatless Monday 는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환경을 생각해서 좋다가보다는 그냥 내 입맛에 맞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나를 제외한 다른 멤버나 YMCA 식구들이 힘들어 할 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Meatless Monday 가 환경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미가 고기 없다고 식빵에 버터+설탕 발라먹는 것 보면 이게 좋은 캠페인인가 싶기도 해요.

2. 나비효과 나의효과

● **Manny** :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 감을 때 물과 샴푸를 절약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낮에 화장실 들어갈 때는 불을 켜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하던 습관 때문인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선풍기를 필요할 때만 틀었는데 이제는 계속 틀어놓기도 하고, 잘 때도 이불을 덮고 선풍기를 켜기도 해요. 다음달에는 더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겠어요.

● **Sean** : 한국에서는 물을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샤워할 때 물 받아쓰기를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다짐을 실천하던 중, 과연 물을 받아서 샤워하는 것이 샤워기를 이용하는 것 보다 물을 적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샤워기로 쓰는 게 오히려 덜 나오더라구요... 이로서 깨달은 점은 물을 아끼는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물 자체를 적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새는 물, 흐르는 물 낭비하지 말고 빨래도 한 번에 모아서 해야겠어요. 개인적으로 물을 아껴 쓴다는 건 끝까지 실천할 예정이에요.

● **Liz** : 이번 달에는 샴푸 적게 쓰기와 공용 공간 플러그 뽑기를 실천했어요. 두 가지는 생각보다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키도록 노력할거예요. 그래도 아직 린스와 바디샴푸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더 노력해야겠어요. 여기는 찬물만 나와서 한국에 비해서 샤워할 때 물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양치 컵도 쓰긴 하는데 꾸준하게 실천하기가 쉽지 않네요. 가끔은 강제단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비효과 나의 효과를 더 철저히 지키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 **Jina** : 쓰지 않는 플러그는 제거하고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샴푸도 적정량 쓰고 있고, 공장 과자를 최대한 사먹지 않아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있어요. 하지만 물은 많이 아껴 쓰지 못한 것 같아요. 강제단수로 어쩔 수 없이 물을 아껴 쓸 때를 제외하고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마미랑 외출할 때 가까운 거리도 트라이씨클 타고 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요.

14. 필리핀, 이곳에 오다.

★ Manny

필리핀에 온지도 한 달이 다되었다. 한국을 벗어난 것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길거리에 가득한 트라이시클과 지프니도, 다른 피부의 사람들이 나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도 익숙하다. 오히려 당연한 풍경으로 느껴진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곳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다.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곳에서의 초대를 받았다. 결혼식, 돌잔치, 생일파티 등 자원 활동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관광을 온 것으로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곳에 방문을 했다. 솔직히 노는(?)것 같은 생각도 들었지만, 지역사회에 우리를 알리고 녹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다. 한 달 동안 지역사회와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필리핀 사람들은 타인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쿠야(형), 아떼(누나), 띠따(이모)이다. 또 낯선 이방인을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잔치에 초대를 한다. 아무에게나 인사를 해도 웃으면서 받아준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 조차도 말이다. 너무나 호의적이다. YMCA 현지 멤버에게 필리핀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받은 진심이다. 솔직히 한국에서는 앞 집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과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었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많았고 항상 마음을 닫아 놓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현지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를 받아주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나 역시도 낯 가림 없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 낯선 이방인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다. 아마도 아시아의 좋은 친구는 내가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아닌가 싶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남은 4개월도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 Sean

필리핀이라는 파견지는 나에게 새로운 곳이라기 보다는 한국처럼 익숙한 곳이었다. 필리피노 가족과 함께 살았다는 점, 시골마을에 살았다는 점,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나는 이미 두려움 몇 가지를 떨치고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2년 전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던 필리핀은 정말 더웠다. 라온아띠로 다시 방문했을 때 그 느낌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설렘과 기대감이 더욱 더 컸다. 필리핀에 대한 첫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에 거리낌이 없다. 2년 전 느꼈던 점을 다시 한번 느끼니 이것이 진정 그들의 문화이고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필리핀인들은 우리와 피부색도 문화도, 생각도 다르지만 같은 아시안이라는 그룹으로 묶여있다 그렇기에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인 것 같다.

★ Liz

필리핀에 왔을 때, 한국의 60,70 년대로 과거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돈되고 깨끗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역동적이고 이국적이었다. 특히 거리에 늘어선 트라이시클과 몇 분간 내린 비로 거리가 잠기는 모습은 신기하기까지 했다. 공기가 매우 안 좋아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젠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낯설다. 트라이시클이나 버스 같은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매연뿐만 아니라 아무 데서나 쓰레기를 태우는 게 큰 원인인 것 같다. 또, 이 곳은 우리나라의 과거와 다르게 격차가 커도 더 큰 것 같다. 1960 년대의 한국 같았으면 대부분 다 못사니까, 아무리 잘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해도 두 사람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을 텐데 이 곳은 다르다. 못 사는 사람은 시계가 몇 십 년 전에 멈춘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은 첨단을 달린다. 헤진 옷에 맨발로 공원에서 자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꽤나 많고,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사람들은 더 많다.)과 빨간 스포츠 카를 타고 큰 몰에서 명품시계를 둘러보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곳, 필리핀이다.

★ Jina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사실 정신 없어서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산 파블로 시티에 온 이후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여기는 필리핀! 더운 건 둘째치고, 지금은 우기인데다가 워낙 트라이시클과 지프니들이 뿜어내는 매연이 심해서 약간은 우중충한 분위기였다. TV 에서 보던 동남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랄까? 사실 아직도 매연에 완전히 적응되지는 않았지만, 초반에는 밖에 나갈 때마다 숨을 참고 다니느라 고생했었다. 하지만 이런 환경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곳의 사람들은 참 친절했다. 처음 보는 우리인데도 먼저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서, 처음 온 곳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15. 한 달을 마무리 하며...

♪ Manny

출국 전 캠프 때 5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적극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많이 했었다. 처음엔 불가능이란 없는 것처럼 생각됐고, 활동의 끝났을 때의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됐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단지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점점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원래의 내 모습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분위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었다. 생각해 보면 성장하면서 고착된 기질이 겨우 한 달 만에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아주 조금이나마 변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더 많이 변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고 활동이 끝났을 때의 모습도 기대가 된다.

♪ Sean

반갑다!

필리핀으로 파견지가 정해졌을 때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한편으로는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봤으면 하는 아쉬움. 라온아띠가 되었다는 기쁨만큼이나 서로 다른 감정이 마구 솟아났다.

마닐라 공항을 나왔을 때 2년 전 그때가 떠올랐다. 조금은 진일보한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노라 다짐하고 발걸음을 옮겼을 때 동남아 특유의 습기 가득한 향이 풍겨왔다. 드디어 필리핀에 왔구나!

예전에 한번 살아봤던 나라여서 그런지 적응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총장님도 너무 좋았고 바탕와이들도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어주었다. 5개월간의 활동이 전혀 걱정되지 않았다. 환경이 이렇게 좋은데 가장 중요하면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나'인 것 같았다. 2년 전 필리핀에 살았지만 생각보다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했고, 영어공부가 목적이긴 했지만 따갈로그어 한마디 못하는 내가 부끄러웠다. 라온아띠 8기로서 그 당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5개월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바람이다.

라운아띠가 되고 나서 가장 기쁠 때는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이다. 한국에서는 별 것 아니라고 지나치던 것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겉보기에 멀쩡하다고 해서 빈곤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다른 파견국들에 비해서 필리핀이 상대적으로 잘 사는 것은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5 개월은 무엇인가를 바꾸기에는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 활동을 위해서 기반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개월 동안 치열하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해야겠다.

벌써 10 월이다. 최초의 다짐 잃지 말고 발전적으로 살아가도록 해야겠다. 남은 4 개월 열심히 활동하고, 잘 놀고, 폭 쉬다가 멋진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본격적인 활동들이 시작되는데 지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필모니 파이팅!

♪ Liz

필리핀에 처음 도착해서 내가 참 여러모로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1980 년대 후반에 서울에서 태어나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당연하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곳의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선택지가 많은 삶을 살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바라던 내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이걸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의문을 안은 채 이곳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를 '귀빈'대접 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약간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산 파블로로 넘어왔고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말 그대로 좋다. 이제 적응은 웬만큼 한 것 같으니, 이 곳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공유할 수 있는 pinay 가 되고 싶다. 속도와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한국의 삶에서 벗어나 이 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게 마음의 위안이 된다. 내가 그간 살아왔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있고 유쾌하다. 9 월 한 달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몇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방식이 비교적 느리고, 절차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이런 삶도 있구나 하는 마음을 먹는 게 낫다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마미(산 파블로 와이의 총장)의 모습이 나한테는 꽤나 인상적이다. 마미와 내가 닮은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점은 좋게 작용하니 더 가꾸고, 혹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고쳐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일단 이 분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분이기에, 더 많은 에너지와 배움을 얻고 싶다.

팀워크에 관해서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라온아띠가 겪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팀원들과 잘 맞는 부분을 찾을 때는 기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자신을 다시 반성해보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아쉬운 것은, 어째서 인지 한 달이 너무나도 빨리 가버렸다는 것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미련만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 같아 다시 흩어진 정신들을 챙겨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팀원, 산 파블로 와이 식구, 그리고 지역에서 만나는 주민과 어린이들)도 돌아보고, 나 스스로도 돌아보는 그런 네 달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내 삶을 어떻게 살림살이해나갈지 슬슬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

♪ Jina

한 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정말로.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초반에는 시간이 안 가다가, 집에 돌아올 때가 되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던데, 내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벌써 한 달이 가버렸다는 게 아쉽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슬퍼진다. 사실 이번 한 달 동안 딱히 '봉사활동' 이라고 생각되는 활동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주로 이 곳에 적응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활동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달에 했던 활동 중,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 활동은 Bagong Pook 초등학교 Feeding 프로그램과 Baloc 의 여성 커뮤니티 조직 관련 활동이다. Feeding 은 지금까지 총 3 번 했는데, 앞으로도 좀 더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밥 먹는 아이들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피딩 이후에 액티비티는 어떤 걸 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흥미를 이끌 수 있을지. Baloc 의 여성조직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지 간단한 소개 정도만 받은 상태라 조금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한 달을 지내본 결과, 필리핀 사람들, 혹은 산 파블로의 주민들은 참 다정다감하고 쾌활하고 친절하다.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릴 보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해주는 모습이 참 고마웠다. 필리핀에 가서 현지 사람들과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곳의 사람들을 만나는 매 순간 순간이 행복해서 이제는 그런 걱정 같은 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아직은 활동 초반이니만큼, 마미도 우리에게 이 곳의 생활방식 등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은 어느 정도 그 목표를 달성한 것 같다. 특히 우리와 함께 사는 San Pablo City YMCA 의 식구들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여기 온 이후로 단 한번도 이 곳에 왔음을 후회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Masaya ako sa San Pablo City♥